

## 제주특별자치도 색달동에 '자동기상관측소' 신설

- 남부중산간 지역, 촘촘한 기상관측 수행 가능해져..... -

□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이용섭)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에 AWS를 신설하고 지난 10월 25일부터 관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※ AWS(Automatic Weather Station) : 자동기상관측소

○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 등 지형의 영향과 고도별 기상특성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. 이에 2022년 11월부터 '제주도북부중산간'과 '제주도남부중산간' 특보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※ 중산간지역은 해발고도 200m이상 600m미만의 지역

○ 이번에 색달동에 AWS가 신설되면서 '제주도남부중산간'의 서쪽에 기상관측 공백지역을 해소하여 보다 촘촘한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게 되었다.

○ 이로써 한라산과 오름 등 지형의 영향과 고도별로 매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제주도만의 기상특성과 중산간 지역의 생활권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상예·특보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□ 제주지방기상청장은 '촘촘한 기상관측을 기반으로 정확한 기상예·특보업무를 수행하고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여 제주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김길엽 (064-909-3951)
		담당자	담 당	고홍표 (064-909-3952)

